

자유총연맹

특별인터뷰 - 장기식 제14대 전국시·도청년협의회장

“젊은 패기로 13만 청년회원과 통일 선봉에 서겠습니다”

장기식(43) 회장이 9월 20일 제14대 전국시·도청년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청년협의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장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활동계획 등을 들어봤다.

• 새 회장으로 어떤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연맹 통일선봉대 활동에 앞장서나가는 활력있는 청년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회장님께서 일궈놓은 청년회를 보다 내실있는 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유·평화·통일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고 미래 통일시대의 값진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연맹의 위상을 높이 세우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는 조직으로 17개 시·도지부와 13만 명의 회원규모를 가진 가장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청년협의회 관계는 더욱 특별해야 합니다. 청년협의회는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며 시·도지부 회원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역할로서 상호보완적



통일시대 값진 밑거름 되는 청년협의회로... 사회통합·안보 에너지 모으는 활동 펼칠 터

• 그간 연맹 활동을 통해 조직에 직접 참여해 본 결과 느낀 게 많으셨을 텐데요.

“연맹은 2007년 대구시지부 청년협의회를 시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3대 청년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특성과 실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맹은 확고한 국가관과 이념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구성원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통, 그리고 상생의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 기능을 수행해야 연맹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직운영의 방향과 함께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을 대폭 교체했고 새로운 청년회장단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전국 시·도지부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해 조직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협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국 청년협의회는 청년회원들을 대표

• 현재 연맹의 핵심 과제는 ‘100만 통일 선봉대’의 조기 정착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년협의회는 100만 통일선봉대 중의 선봉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협의회와 긴밀히 연대하여 지역별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에 앞장서고 북한지역을 연구하며 통일선봉대원 양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 끝으로 회원 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 60여 년 동안 자유대만을 지켜온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연맹 청년협의회가 사회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일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봉사가 아닌 책임감과 즐거움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활적인 봉사단체로 만들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한 청년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식 회장이 11월 4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시·도청년협의회장들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주요 경력 ■

- 현) (주) 다음 FNB 대표이사
한국청년회의소 법제실장
- 전)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청년협의회 13대 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청년협의회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대구지구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42

◆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